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Republic

2022년 3월 8일 | 선임조사역(팀장군) 김찬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87천 km ² 	인구 10.2백만 명 (2021 ^e)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터키와 긴밀한 협력 
GDP 526억 달러 (2021 ^e) 	1인당GDP 5,167달러 (2021 ^e) 	통화단위 Azerbaijani Manat(AZN) 	환율(\$기준) 1.70 (2021 ^e) 

- 카스피해 서안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에너지 산업 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취임한 알리에프 대통령이 2018년 4선에 성공하여 2025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됨.
- 카스피해 지역에 대규모의 유전,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방의 에너지 기업들이 에너지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송유관, 가스관을 건설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음.
- 아르메니아가 실효지배하고 있었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싸고 2020년 9월 말 이후 6주 동안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이 발발하였으나, 러시아의 중재로 11월 초 휴전에 합의하였음.
-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민족·종교적으로 유사한 터키와 긴밀히 협력하고, EU와 에너지, 운송 등의 부문에서 협력관계를 맺어 왔음. 한편 2014년 이후 러시아와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2020년 아르메니아와 전쟁 중 러시아의 아르메니아에 대한 무기 공급 등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3. 23 수교 (북한과는 1992. 1. 30)

주요협정 문화협정, 항공협정(이상 '06),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외교관상호사증면제협정,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위한협정(이상 '08),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이상 '13), 운전면허증상호인정및교환협정('14), 세관상호지원협정, 무상원조기본협정(이상 '19)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 출	80	72	108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수 입	1	3	2	예술품, 전기기기, 방사선기기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9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22건, 5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e
경제성장률	0.2	1.5	2.5	-4.3	3.0
소비자물가상승률	12.8	2.3	2.7	2.8	4.4
재정수지/GDP	-1.3	5.5	9.1	-6.5	-1.8

자료: IMF, EIU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및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3.0%의 플러스 경제성장 회복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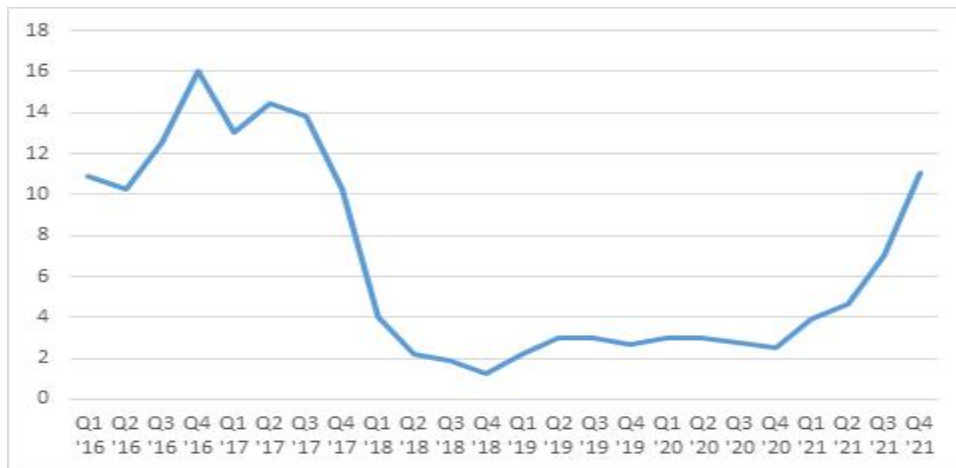
- 아제르바이잔 경제는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유·가스 부문의 경기 변동에 따라 좌우되고 있음. 2017~19년 샤 데니즈 가스전 등에서의 가스 생산 증대로 플러스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 부진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대외적으로는 석유·가스 수출액이 감소한 결과 -4.3%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 2020년에는 전 세계적인 원유 수요 감소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원유 수출액이 전년(148.1억 달러) 대비 36.8% 감소한 93.6억 달러에 그쳤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유럽 지역의 가스 소비 감소 등으로 가스 수출액도 22.0억 달러로 전년(23.8억 달러) 대비 7.7% 감소함.
- 202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비에너지 부문 호조, 민간소비 회복 등 내수 증가에 힘입어 3.0%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소비 부문이 전년 대비 9.0% 증가하면서 GDP의 47.9%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23.5% 성장하였으며, 원유·가스 등 상품 수출도 58.6% 증가하여 플러스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에도 국제유가 상승 추세, 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등의 요인으로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기회복,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4.4% 기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17년 마나트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급등의 여파로 연속 12%대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 상반기 이후의 환율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2018~19년에는 대폭 안정된 2%대를 유지하였으며, 2020년에도 경기 둔화 및 환율 안정 등으로 2.8%를 기록함.
- 중앙은행은 2020년에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기준금리를 네 차례(6월, 7월, 9월, 12월)에 걸쳐 연초의 7.25%에서 6.25%로 인하하였음.
-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기회복, 고유가에 따른 채굴업 등 생산자물가 상승 및 세계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4.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중앙은행은 2021년에는 물가 상승 등에 따라 하반기에 세 차례(9월, 10월, 12월)에 걸쳐 6.25%에서 7.25%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2022년 1월 7.5%로 추가 인상하였음.

국내경제

[그림 1] 아제르바이잔의 분기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 대비)



자료: 아제르바이잔 통계청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 재정지출 둔화로 재정수지 적자 축소

- 재정수지는 2018~19년 에너지 자원 수출액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로 흑자(GDP 대비 2018년 5.5%, 2019년 9.1%)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기업으로부터의 세입 감소, 코로나19 대응, 아르메니아와의 영토 분쟁에 따른 군비 지출 증대로 인해 GDP 대비 -6.5%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20년 초 정부 재정에 반영된 유가는 배럴당 55달러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정부는 8월 배럴당 35달러를 기준으로 책정된 새로운 예산을 수립하였음.
- 2020년 8월 팬데믹 대응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악화됨에 따라 국부펀드(SOFAZ)로부터의 예산 이전 상한금액이 기존 113.5억 마나트(67억 달러)에서 122.0억 마나트(72억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음.
- 2021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1.8%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빈곤계층 생계 지원 및 팬데믹 관련 지출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율은 2020년 8.1%에서 2021년 3.8%로 둔화된 반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으로부터의 세수 증대로 재정수입이 증가한 결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전년(-6.5%) 대비 축소된 것으로 보임.
- 2021년 SOFAZ로부터의 예산 이전 상한액은 122.0억 마나트이나, 실제 이전액은 113.5억 마나트로 전년(122.0억 마나트) 대비 감소하였음.
- 2021년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에서 탈환한 지역의 복구 및 재건이며, 이를 위해 집행될 예산으로 12.9억 달러가 배정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 상 수 지	1,685	6,051	4,365	-228	5,768
경상수지/GDP	4.1	12.9	9.1	-0.5	11.0
상 품 수 지	6,115	9,841	8,533	2,512	9,162
상 품 수 출	15,152	20,794	19,868	12,588	19,970
상 품 수 입	9,037	10,952	11,335	10,077	10,808
외 환 보 유 액	6,462	6,452	6,831	7,413	7,567
총 외 채	22,061	22,193	22,736	23,764	25,046
총외채잔액/GDP	53.3	47.1	47.2	55.8	47.6
D.S.R.	9.4	7.9	6.1	9.2	6.4

자료: IMF, EIU

2021년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출액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 전환

-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보일러·기계류, 전기기기, 일반차량 등임.
- 2020년 기준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수출상대국은 이탈리아, 터키, 러시아, 그리스 등이며, 주요 수입 상대국은 러시아, 터키, 중국, 미국 등임.

[그림 2] 아제르바이잔의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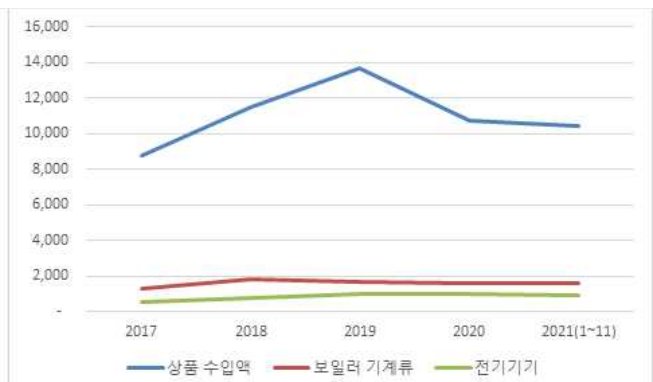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

[그림 3] 아제르바이잔의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

대외거래

- 경상수지는 2020년에는 국제유가 하락(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평균 2019년 64.0달러 → 2020년 42.3달러)의 영향으로 2016년 이후 4년 만에 GDP 대비 -0.5%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와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의 여파로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32.8% 감소하면서 총수출도 전년 대비 -32.3% 감소하였음.
- 202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출액의 증가로 상품수출액이 전년의 125.9억 달러에서 199.7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는 2020년 25.1억 달러에서 2021년 91.6억 달러로 증가하고, 그 결과 경상수지는 2020년 -2.3억 달러의 적자에서 2021년 57.7억 달러(GDP 대비 11.0%)의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평균 2020년 42.3달러에서 2021년 70.4달러로 66.4% 상승함.
- 2022년에도 에너지 국제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샤 데니즈 가스전의 천연가스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아제르바이잔의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2021년(1~11월) 원유 및 가스 수출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아제르바이잔의 원유 수출규모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2020년 93.6억 달러에서 2021년(1~11월) 122.9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아제르바이잔의 가스 수출규모도 2020년 11월 TAP(Trans Adriatic Pipeline) 완공에 따른 대 유럽 수출증가 등에 따라 2020년 22.0억 달러에서 2021년(1~11월) 45.0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표 1] 주요 원유 수출대상국 및 수출규모

국가	수출액(억 달러)
전체	122.9
이탈리아	57.7
이스라엘	7.8
크로아티아	7.5
포르투갈	5.9
인도	5.8

주: 2021년 1~11월 기준.
자료: UN.

[표 2] 주요 가스 수출대상국 및 수출규모

국가	수출액(억 달러)
전체	45.0
이탈리아	23.0
터키	15.4
조지아	3.2
그리스	2.7
불가리아	0.3

주: 2021년 1~11월 기준.
자료: UN.

외환보유액 규모는 증가 추세이며, 2021년에는 총수출 증가로 GDP 대비 총수출 비율 개선

- 외환보유액 규모는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2020년 제외)에 힘입어 2018년 64.5억 달러에서 2021년 75.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월평균수입액 대비로도 2018년 3.6개월분에서 2021년 4.6개월분으로 상승하였음.
- 2020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총수출이 -32.3% 감소함에 따라 GDP 대비 총수출 비율이 2019년 52.4%에서 2020년 40.1%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에는 총수출이 45.8%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총수출 비율이 2021년 47.3%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대외거래

중앙은행의 적극 개입으로 2017년 이후 사실상의 고정환율 유지

-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2017년 4월 이후 달러당 1.7마나트의 환율을 유지하는 등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음.
- 정부는 국부펀드(SOFAZ) 보유 외환의 시장매각을 통한 환율안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0년 1~10월 중 환율 유지를 위해 약 62억 달러를 매각함. 국부펀드 규모는 2019년 말 433억 달러에서 계속 감소하다 국제유가 회복 및 그에 따른 에너지 수출액 증가로 2020년 말 436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2021년 말에는 450억 달러로 증가함.
- 거시경제 여건 개선으로 마나트화 가치 하락 압력이 감소하고, 2021년 말 450억 달러에 달하는 국부펀드 규모는 외환수요 지원에 충분할 것으로 보여, 아제르바이잔은 향후에도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외채상환능력

총수출액 및 GDP 규모 증가 등으로 외채상환능력 지표 개선

- 2021년에는 세계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총수출액 및 GDP 규모 증가로 주요 외채상환능력 지표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21년 총수출증가율이 45.8%로 추정됨에 따라, 총수출액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20년 139.3%에서 2021년에는 100.7%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또한,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2020년 9.2%에 이어 2021년에도 6.4%로 한 자릿수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양호한 수준임.
- GDP 규모가 2020년 426억 달러에서 2021년 526억 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20년 55.8%에서 2021년에는 47.6%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21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약 4.6개월분 수준으로 추정되며, 단기외채잔액 규모는 외환보유액의 12.9%로 안정적인 수준임.

구조적취약성

에너지자원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로 대외환경 변동에 취약

- Fitch에 따르면,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은 아제르바이잔 수출의 86%, GDP의 40%, 재정의 2/3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¹⁾ 이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경제는 국제 에너지가격의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
- 2020년 기준 아제르바이잔의 상품수출 구성은 석유제품 86.5%, 식료품 4.9%, 금속 1.2%의 순이며, 상품수입 구성은 기계 및 장비 23.6%, 식료품 15.3%, 운송장비 14.4%의 순임.
- 2014~15년의 국제 에너지가격 폭락 당시 아제르바이잔 GDP 규모는 2014년 750억 달러에서 2016년 380억 달러로 크게 축소되었고, 경제난으로 자국 내 시위가 확산된 바 있음.

은행 부문은 여전히 취약하나 부실여신비율은 감소 추세

- 아제르바이잔의 금융 부문은 금융시장 구조조정, 부실대출 등으로 취약성이 지속되었음.
- 2015년 45개에 달했던 은행의 수는 정부의 금융시장 구조조정에 따라 2021년 말 현재 26개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 4~5월 부실대출 등으로 인해 AtaBank, Amrahbank, AGBank, NBC Bank 등 4개 은행에 대한 면허가 취소된 바 있음.
- 2017년 말에는 아제르바이잔 최대 은행인 IBA(International Bank of Azerbaijan)의 33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재조정이 진행된 바 있음.
- 다만, 2017년 20%에 달하던 NPL(무수익여신) 비율은 2019년 말 8.3%로 감소한 데 이어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으로 2021년 7월 말 5.5%로 점차 감소하였음. 가계에 대한 정부지원은 향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자산건전성 하향 압력은 은행의 건전한 이익규모 등으로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성장잠재력

풍부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수출을 통한 성장잠재력 보유

- BP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 말 기준 70억 배럴 규모의 원유 확인매장량(세계 확인매장량의 0.4%) 및 2.5조 m³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세계 확인매장량의 1.3%)을 보유하고 있음.²⁾
- 2020년 기준 원유 생산량은 일평균 71.6만 배럴로 전 세계 생산량의 0.8%, 천연가스 생산량은 연간 258억 m³로 전 세계 생산량의 0.7%를 각각 점유한 것으로 집계됨.
- 연간 천연가스 생산량은 신규 가스전의 생산 증대로 2010년 163억 m³에서 2015년 188억 m³, 2020년 258억 m³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연간 원유 생산량은 2010년 5,132만 톤(103.7만 배럴)을 정점으로 2015년 4,202만 톤, 2020년 3,510만 톤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일일 원유 생산량도 2010년 103.7만 배럴에서 2020년에는 71.6만 배럴로 감소하였음.

1) Fitch Azerbaijan Rating Report(2021. 11. 29).

2)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성장잠재력

에너지 부문에 대한 개발 및 투자 지속

- 아제르바이잔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외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1994년 ACG(Azeri-Chirag-Gunashli) 유전의 생산물분배계약(PSA) 체결 이후 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360억 달러가 투자³⁾되었으며, 2017년에 PSA가 2049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추가 투자가 계획됨.
- 일평균 생산량 16만 배럴 규모의 ACG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현재 Baku-Tbilisi-Ceyhan(BTC) 송유관과 Baku-Supsa 송유관을 통해 수출되고 있음.

[그림 4] 아제르바이잔의 기존 송유관 및 가스관



자료: <http://www.socar.az>

- Shah-Deniz 가스전은 카스피해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 최대의 가스전으로, 2018년부터 생산이 시작된 Shah-Deniz-2 가스전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 Shah-Deniz 가스전의 지분은 BP 28.8%, 터키 TPAO⁴⁾ 19%, 말레이시아 Petronas 15.5%, 아제르바이잔 SOCAR 10.0%, 러시아 Lukoil 10%, 이란 NICO 10%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Shah-Deniz-1에서 생산된 가스는 BTE 가스관을 통해 터키로 수출됨. Shah-Deniz-2에서 생산된 가스는 2018년부터 터키로 수출되었으며, 각각 2019년 11월 및 2020년 11월 완공된 TANAP(Trans-Anatolian Natural Gas Pipeline) 및 TAP(Trans Adriatic Pipeline)을 통해 남유럽으로도 수출됨.
- 한편, 2020년 3월 아제르바이잔 국영 에너지 기업 SOCAR는 노르웨이 Equinor사와의 공동 탐사 결과 수도 바쿠에서 동쪽으로 120km 거리에 위치한 카스피해 상에서 추정매장량 약 6,000만 톤의 새로운 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음.
- 동 유전은 아제르바이잔이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처음으로 발견한 유전으로, 아르메니아와의 영토 분쟁지역인 카라바흐(Karabakh)를 따라 카라바흐 유전으로 명명되었음.

3) ACG 지분율: BP 30.37%, SOCAR(State Oil Company of Azerbaijan Republic) 25.0%, MOL 9.57%, INPEX 9.31%, Equinor 7.27%, ExxonMobil 6.79%, TPAO 5.73%, Itochu 3.65%, ONGC Videsh Limited(OVL) 2.31%. (자료: <https://www.bp.com>)

4) Türkiye Petrolleri Anonim Ortaklığı(Turkish Petroleum Corporation)

성장잠재력

[그림 5] 카스피해 ACG 유전과 Shah-Deniz 가스전



자료: <https://www.offshore-mag.com>

유럽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천연가스 수출망 구축으로 에너지 수출 안정화 추구

- Shah-Deniz-2 가스전에서 터키를 통과하는 총연장 1,878km의 TANAP 가스관이 2019년 11월 완공되었으며, 2020년 11월에는 TANAP 가스관으로부터 그리스, 알바니아를 거쳐 남부 이탈리아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총연장 878km의 TAP 가스관이 완공되어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수출망이 구축됨.⁵⁾
- 아제르바이잔의 가스 수출규모는 2020년 11월 TAP의 완공에 따른 대 유럽 수출 증가 등에 따라 2020년 22.0억 달러에서 2021년(1~11월) 45.0억 달러로 증가함.
- 아제르바이잔의 가스 수출은 터키에 대해서는 2020년 19.0억 달러에서 2021년(1~11월) 15.4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2021년 수출이 개시되어 1~11월 중 2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그리스에 대해서는 2020년 0.2억 달러에서 2021년(1~11월) 2.7억 달러로 대폭 증가함.

[그림 6] TANAP 가스관과 TAP 가스관



자료: <https://www.sgc.az/en>

5) TANAP 가스관의 지분 구성은 아제르바이잔 SGC 51%, 터키 BOTAS 30%, BP 12% 등이며, TAP 가스관의 지분 구성은 BP 20%, SGC 20%, 이탈리아 Snam 20%, 벨기에 Floxys 19%, 스페인 Enagás 16%, 스위스 Axpo 5% 등임.

정책성과

에너지 수출 소득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정부 예산, 교육 등에 사용

- 에너지 수출 소득으로 조성된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 SOFAZ(Sovereign Oil Fund of Azerbaijan)의 자산규모는 2021년 말 450억 달러로 GDP의 85.6%에 달하고 있음.
- SOFAZ 자산은 에너지 자원 관련 수입(收入) 등을 통해 축적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SOFAZ 자금을 예산 지원, 교육 등에 사용하고 있음. SOFAZ의 2021년 예산은 수입 80억 마나트(47억 달러) 및 지출 122억 마나트(72억 달러) 규모이며, 주요 수입항목은 에너지 자원 판매수입, 주요 지출항목은 정부 예산 전입 등임.

[표 3] 2021년 SOFAZ의 예산 항목

수 입		지 출	
항 목	비중(%)	항 목	비중(%)
에너지 자원 판매 순수입	80.5	정부 예산 전입액(상한)	99.6
석유 및 가스 계약체계 상의 보너스 수입	9.7	“2019~23년 고등교육 체계 국제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금융 지원	0.2
SOFAZ 자산 관리 수입	9.5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의 영토 통과 수입	0.3	국부펀드 행정 비용	0.2
에너지자원 탐사용 토지 수수료(acreage fees)	0.1		

자료: <https://oilfund.az>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

- 2020년 터키와 MOU를 체결하여 아제르바이잔의 고립 영토인 나흐치반(Nakhchivan) 자치공화국과 기존의 BTK(Baku-Tbilisi-Kars) 철도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2021년 2월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철도 건설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음. 동 철도 완공 시 나흐치반에서 터키의 Kars로 철도가 연결되어 나흐치반의 운송 및 물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에서 탈환한 지역의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지역 재건을 위해 2021년 국가 예산에서 12.9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탈환 지역 재건 및 복구를 위해서는 향후 5~10년 간 최소 100억 달러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됨.
- 아제르바이잔은 전쟁 직후 동 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시작, Fuzuli 국제공항이 완공되어 2021년 10월 개항되었음. 또한 탈환 지역인 Agdam시 재건을 계획하여, 3년 내에 5만 명 이상 거주하는 현대적 도시로 재건한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세계은행의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순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

- 세계은행이 매년 평가하는 기업경영여건 순위가 2017년 65위, 2018년 57위, 2019년 25위로 계속 상승하였으며, 2020년에도 34위(전체 190개국)로 비교적 양호한 순위를 기록함.
- 자금조달(1위), 창업(9위), 법적분쟁 해결(28위) 등의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소액투자자 보호(105위), 통관행정(83위)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정책성과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제고 계획

- 아제르바이잔 에너지부는 전체 전력 생산용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 16%에서 2030년까지 30%로 제고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 아제르바이잔은 2017년 전력 생산의 84%를 전통적 에너지에 의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16%에 불과한 실정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21년 4월 UAE의 Masdar사와 2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발전소(230MW) 건립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ACWA사가 3억 달러를 투자하는 풍력발전소(240MW)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비율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정치안정

알리에프 대통령,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의 승리로 견고한 통치기반 확보

-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은 부친인 헤이다르 알리에프 대통령을 계승하여 2003년부터 집권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대선에서 86.2%의 득표율로 4선에 성공하여 2025년까지 집권할 예정임.
- 2009년 대통령 임기 제한 폐지, 2016년 대통령 임기 연장(5년 → 7년)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되어 왔으며, 2017년에는 현 대통령의 부인인 메흐리반 알리에바가 제1부통령으로 임명됨.
- 또한 2020년 9~11월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 아르메니아가 점령하고 있던 영토의 상당 부분을 탈환하여 통치기반이 더욱 견고해진 것으로 평가됨.
- 알리에프 대통령은 2020년 12월 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향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지역 거주민은 모두 아제르바이잔 시민이라고 선언하였음.

[그림 7]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휴전협정 이후 영토 조정지역



자료: BBC Research. 10 November 2020.

2020년 2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 확보

- 2020년 2월 실시된 총선에서 알리에프 대통령이 대표를 겸하고 있는 집권 여당인 신아제르바이잔당 (NAP)이 전체 125석 중 70석을 확보하였음. 당초 총선은 2020년 11월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의 개혁정책 방안에 대한 의회의 지원 부진을 이유로 2019년 12월 집권당이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제안함에 따라 2020년 2월 초로 앞당겨 실시되었음.
- 선거 결과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였으나, 국제 선거참관단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음.

사회안정

야권의 영향력이 미미한 가운데 정부는 반정부 시위에 강경 대응

- 2020년 2월 총선 결과 의회 의석의 56%를 여당이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의석도 무소속 또는 친정부 성향 소수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의 세력은 사실상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엄격한 언론통제 등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역할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에 대한 비판 집회나 시위 등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고 있음.
- 2020년 2월 총선 이후 발생한 총선 무효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경찰은 야당 대표 3명을 비롯한 100여 명의 시위대를 구금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 바 있음. 2021년 12월에도 경찰은 수도 바쿠에서 야당 정치인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20여 명을 체포함.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패 만연

- 2021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평가한 아제르바이잔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는 전체 180개국 중 하위권인 128위임. 이는 기존의 평가인 2010년 134위(평가대상 178개국), 2015년 119위(평가대상 198개국)와 유사하여 부패가 여전히 사회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평가됨.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공공행정, 교통정책, 공공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부패 방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정부는 2005년 부패방지를 위한 '반부패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체인 '열린 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의 기준 충족을 위한 '2016~18년 열린 정부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음.
- 2019년 6월에는 '열린 정부를 위한 새로운 국가 실행 플랜'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 바쿠에서 세계 각국 대표가 참여하여 정부정책의 투명성 향상 등을 논의하는 "UN Public Service Forum"을 개최하였음.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등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

- 아제르바이잔은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 증진 등의 활동을 하는 국제 민간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평가하는 세계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에서 '부자유' 등급으로 분류되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Freedom in the World 2021 보고서⁶⁾에서 사회적 자유도인 Global Freedom Scores(10점: "부자유"[Not Free])와 인터넷 사용 자유도인 Internet Freedom Scores(35점: "부자유") 모두 조사대상 중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수준(0~100)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0/100)과 함께 구소련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 수준인 1/100을 기록함.

6) ① Global Freedom Scores : Political Rights 2/40 + Civil Liberties 8/60 = 10/100

② Internet Freedom Scores: Obstacle to Access 10/25 + Limits on Content 14/35 + Violations of User Rights 11/40 = 35/100 [평점 구간: 100~70점 Free, 69~40점 Partly Free, 39~0점 Not Free]

국제관계

터키와는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 유지

- 아제르바이잔은 같은 투르크계 민족 국가인 터키와 언어 및 종교, 문화적으로 유사하며, 양국은 정치·경제·군사 부문에서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투르크어권국가협력위원회(Cooperation Council of Turkic-Speaking States), 투르크어권 국가정보기관회의(Special Service Bodies of Turkic-speaking States) 등의 협의체 활동을 통해 터키와 협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에는 터키로부터 의료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받았음.
- 최근의 나고르노-카라바흐 무력충돌에서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친터키계 시리아 반군의 분쟁 개입설도 제기되었음. 또한 터키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을 조정하는 민스크 회의에도 참여하며 공동의장국 지위를 요청하였으며, 2020년 11월 휴전 이후에도 러시아와 함께 이 지역의 교전 중단을 통제하기 위한 '공동 휴전 감시센터' 창설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음.
- 양국은 2020년 5월 상호 비자 면제기간을 기존의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양국의 일부 교역품목에 관세를 면제하는 양자 특혜무역협정(PTA⁷⁾)도 체결하였음. 이외에도 군사금융협정(Military Financial Cooperation Agreement)을 통해 터키 군수기업이 군수품 및 관련 서비스를 아제르바이잔에 제공기로 합의하였음. 양국은 2021년 2월에 제9차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1억 달러 규모 통상협약을 체결함.
-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의 대 유럽 석유(Baku-Tbilisi-Ceyhan pipeline) 및 가스(Baku-Tbilisi-Erzurum pipeline) 수출 통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2022년 1월 터키에 400만 m³의 천연가스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합의함.

에너지 개발, 공급 등에서 서유럽 국가들과 협력

-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 개발과 생산에 영국 BP, 노르웨이 Equinor, 이탈리아 Snam 등 서유럽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된 에너지를 유럽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음.
- 특히 이탈리아는 아제르바이잔 최대의 원유·가스 수출 대상국으로, 아제르바이잔의 2021년 1~11월 기준 원유 수출액(122.9억 달러)의 46.9%(57.7억 달러) 및 가스 수출액(45.0억 달러)의 51.1%(23.0억 달러)를 이탈리아로의 수출이 점유하였음.
- 2020년 2월 알리에프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양국 정상회담에서 'Joint Declaration on Strengthening Multidimensional Strategic Partnership'에 서명하고 향후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에 합의한 바 있음. 또한, 이탈리아는 아제르바이잔의 EU 및 NATO와의 협력 강화를 적극 지원키로 함.
- EU의 에너지원 다변화 및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위해, EU 에너지장관이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여 2022년 2월 4일 알리에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가스 공급 확대를 논의하고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재확인함.

국제관계

2020년 9~11월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을 통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상당 부분 회복

- 2020년 9월 말 아제르바이잔 군과 아르메니아 군은 아제르바이잔 내에 위치하나 이전에 아르메니아가 실효 지배하던 분쟁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 서로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였다고 주장하며 보복 공격을 가하였고, 양측이 각각 계엄령을 선포하고 동원령과 통행금지 등을 실시하며 양국 간에 1994년 휴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전쟁이 발발함.⁸⁾
- 양측의 무력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내에 1992년 구성된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를 다루는 민스크 그룹(Minsk Group) 공동 의장국인 러시아, 프랑스, 미국이 각각 휴전 합의를 주도하여 세 차례 휴전을 발표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교전이 지속되었음.⁹⁾
- 이후 11월 9일 러시아의 중재로 일함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니콜 파쉬냘 아르메니아 총리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지역 휴전에 합의하고 3자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11월 10일 오전 0시부터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함. 또한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일부 지역과 주변 지역을 아제르바이잔 측에 돌려주고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함.
- 휴전 협정에 따라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내 칼바자르(Kalbajar) 구역을 11월 15일까지, 라친(Lachin) 구역을 12월 1일까지 각각 아제르바이잔 측에 반환하였음. 또한 양국의 합의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과 아르메니아와의 연결 통로를 제공하는 대신, 아르메니아와 이란 사이에 있는 자국 역외영토인 나흐치반과 연결되는 교통망과 통신망을 확보하였음.
- 이번 전쟁으로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의 핵심 요충지들을 함락하며 켈버저르, 라친, 아그담 등의 지역을 차지함. 양측 인명피해는 아르메니아가 군인 2,300여 명 전사 및 민간인 40여 명 사망, 아제르바이잔은 군인 2,700여 명 전사 및 민간인 90여 명 사망으로 알려짐.
- 러시아는 카라바흐 지역에 병력 1,960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5년 간 파견하여 휴전을 감독키로 함.
- 한편, 2022년 1월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와의 국경 지역 충돌에서 1명의 군인이 전사했다고 밝혔으며, 아르메니아도 아제르바이잔과의 충돌에서 전사한 군인의 수가 3명이라고 밝히는 등 국경 지역 긴장이 여전히 고조되어 있음.

8) 이 지역 인구 구성은 아르메니아계 80%, 아제르바이잔계 20%로, 1988년부터 분리 독립 및 아르메니아와의 통합을 주장해온 아르메니아계는 소련 해체 이후 독립에 반대하는 아제르바이잔과 전쟁(1992~94년)을 벌여, 1994년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3만여 명이 숨지고 100여만 명의 이재민(아르메니아계 20만여 명, 아제르바이잔계 80만여 명)이 발생하였음.

9) 민스크 그룹에는 당사국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공동의장국인 러시아, 프랑스, 미국 외에 벨라루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터키도 참여하고 있음. (자료: <https://www.osce.org/minsk-group/108306>)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 연체비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연체규모는 크지 않은 수준

- 2021년 9월 말 기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전년동기(28.2억 달러) 대비 감소한 23.5억 달러이며, 이중 중장기 잔액이 22.5억 달러로 95.6%를 차지함. 연체비율은 0.24%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연체규모는 중장기 520만 달러 및 단기 50만 달러로 비교적 크지 않은 수준임.
- 연체비율(%): 0.01('20.3월) → 0.08('20.9월) → 0.16('21.3월) → 0.24('21.9월)
- 미 수은, 독일 HERMES, 영국 ECGD 등 주요 ECA들은 아제르바이잔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단기 및 중장기 부문 모두 '인수 가능'으로 분류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 (2022.01)	5등급 (2021.01)
S&P	BB+ (2021.01)	BB+ (2020.10)
Moody's	Ba2 (2021.04)	Ba2 (2019.04)
Fitch	BB+ (2021.11)	BB+ (2021.05)

국제신용평가사들은 2017년 이후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OECD는 2022년 1월 등급 상향

- Fitch는 2016년 아제르바이잔의 신용등급을 BB+로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2021년 5월에는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한 바 있으며, 11월에 기존 등급과 등급 전망을 유지하였음.
- Moody's는 2017년 8월 이후 아제르바이잔의 신용등급을 Ba2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함. S&P도 2021년 1월 신용등급을 기존의 BB+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함.
- OECD는 CRAM 모델 등급 상향, 안보 상황 개선, 정치적 안정,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근거로 2022년 1월 아제르바이잔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함.

- 아제르바이잔 경제는 2020년에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마이너스 성장(-4.3%)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3.0%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TANAP 가스관 및 TAP 가스관 건설을 통해 2020년 12월 말부터 카스피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터키를 거쳐 남유럽으로 수출하게 되었음. 그러나 원유 및 천연가스 부문이 GDP의 40%, 수출의 86%를 점유하는 등 에너지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취약점으로 평가됨.
- 2021년에는 세계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총수출액 및 GDP 규모 증가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등 주요 외채상환능력 지표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2003년부터 재임 중인 알리에프 대통령은 2025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이며, 2020년 아르메니아와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을 통해 상당한 영토를 회복하여 더욱 안정적인 정치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부정부패, 민주주의, 언론 자유 등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